

# “인생의 바닥, 박차고 일어나는 곳”

김홍신 작가, 산문집 ‘하루사용설명서’ 발간

“편안한 삶 속에는 성장이 없다.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실패의 위협을 감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협을 감수하는 사람이 천하를 흔들거나 호령하기 마련이다.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내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써보는 것도 괜찮다. 육신은 쉬어야 기력이 생기지만 영혼은 바지런해야 빛난다”

소설가 김홍신(72)이 ‘하루사용설명서’를 냈다. 예술·종교·언어·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며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써내려간 산문집이다.

김 작가는 ‘살아있어 고맙다, 즐겁게 웃으며 소박하고 건강하겠다.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세 가지 다짐을 마음 속에 설명서처럼 새겨두며 하루를 시작한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가장 큰 후회이자 좀 재미있게 살 걸이다. 재미없는 인생은 비극이다. 고통과 상처를 기쁨과 감동으로 바꿀 줄 알아야 재미있게 사는 것이다”

남을 도울 때 오히려 자신이 행복해지는 ‘헬퍼스 하이(Helper's High)’ 현상을 소개하는 등 단순 지식정보에서 더 나아가 통찰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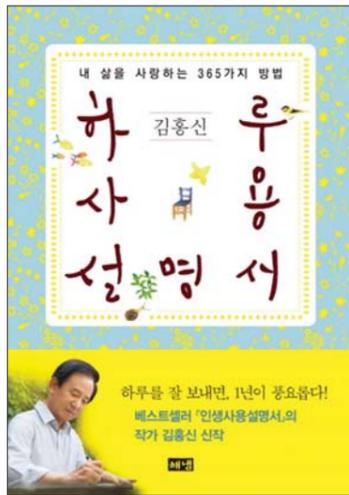
명상·봉사활동·주례·강연·인터뷰·휴대전화·알람시계·운세·관상 등 일상에서 발견한 깨달음이 담겼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은 잃었을

때 느끼는 불행감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두 배쯤 더 크게 느낀다고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수도 없이 많지만 큰 틀로 따지면 명예, 돈, 권력일 것이다. 셋 중에 하나만 얻어도 매우 많은 걸 갖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모두를 다 갖고 싶어 안달을 한다. 셋 중에 하나를 가지면 그걸 정성으로 받들어야 나머지가 절로 따라오는 법이다. 나머지를 억지로 움켜쥐려고 하니 ‘추락’하거나 ‘타락’하게 된다”

“어렸을 때 강물이나 저수지 같은 곳에서 헤엄쳐온 적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바닥이 깊어져 허우적거리다가 물을 마셔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발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바닥에 닿는 순간 한창해 바닥을 차고 솟구쳐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인생도 그렇다. 인생의 바닥은 높거나 주저앉는 지리가 아니라 박차고 일어나는 곳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닥은 위기지만 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살다 보면 여러 차례 바닥으로 추락하는 좌절을 맛보게 된다. 단고 일어나면 반전의 기회가 되지만 누워버리면 고통뿐이다”

김 작가는 “세상이 각박하니 누군가 소리 내어 울어도 관심을 갖는 이가 드문 세상이 됐다”며 “근심, 걱정이 많아서 불면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도 불면증에 시달리기에 동병상련



의 심정으로 썼다”고 밝혔다. “우리가 괴로운 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아서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내 생각의 함정, 내 마음의 함정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한다. 내 자유와 행복을 누가 훔쳐갔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 모두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믿어본다” 416쪽, 1만6000원, 해냄출판사 /뉴시스

## 프랑스 작가 프루스트가 그린 동성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 번역·출간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1871~1922)의 장편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4권, ‘소돔과 고모라’(7·8권)가 번역·출간됐다.

모두 7권에 이르는 연작소설이다. 앞서 1편 ‘스완네 집 쪽으로’, 2편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3편 ‘게르망 쪽’이 출간된 바 있다. 민음사는 2022년 프루스트 사후 100주년에 맞춰 전 권 완역 출간을 준비 중이다.

정본으로 불리는 1987년 프랑스 플레이아드판을 번역본으로 삼았다. 김희영(70) 한국외국어대 프랑스어과 명예교수가 번역했다. 김 교수는 “길고 난해한 프루스트의 문장을 최대한 존중, 텍스트의 미세한 뉘앙스를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독자의 이해와 작품의 올바른 수용을 위해 최대한 많은 주석 작업을 통해 문화적, 예술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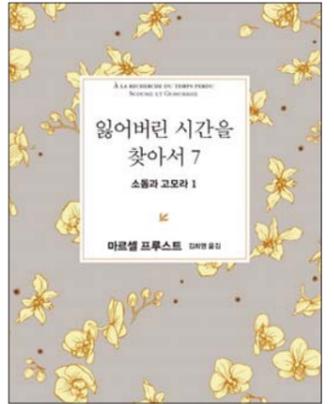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언급된 성적으로 타락한 두 도시에서 가져온 이름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 마르셀은 다양한 계기와 상황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주제를 이끌어 나간다.

앞 권에서 마르셀은 그토록 열망하던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만찬에 참석, 포부르생제르맹 귀족 사회와 맞닥뜨렸다. 마르셀은 게르망트 공작 부인을 기다리다가 샤를뤼스 씨와 짧은 재봉사 쥐피앵의 묘한 만남을 목격한다.

그 후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깨달은 그는 게르망트 대공 부인이 베푸는 연회에 다시 참석, 죽음의 빛이 완연한 스완과 대화를 나눈다.

뤼스뤼스 부인의 시녀를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발베르에 돌아간다. 죽은 할머니의 추억이 불현듯 엄습한다. 그는 사교계에 흘러 할머니를 돌보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알베르틴과 자동차로 발베르 근교를 산책하다가 베르뒤랭 부인의 만찬에 가기 위해 지방 열차를 타게 된다. 베르



뒤랭 부인의 패거리와 조우해 샤를뤼스와 모렐의 관계까지 알게 된 데 이어 알베르틴의 고모라적 성향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알베르틴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알베르틴과 꼭 결혼하고 말겠다고 선언한다.

김 교수는 “동성애에 대한 주제는 유럽 사회에서 19세기 말까지 드물게 다뤄졌다”며 “사교계나 예술계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알려져 있었지만, 보수적인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금기시되거나 범죄로 취급받았다”고 전했다.

“프랑스 문단의 경우를 보자면 앙드레 지드가 ‘코리도’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공연히 선언한 데 반해 프루스트는 보다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동성애를 극화한다.

동성애자는 ‘나’가 아닌 샤를뤼스나 생무, 알베르틴 같은 상상적인 자아들로서, 이런 수많은 가상의 출현을 통한 자아의 증식과 분산은 자서전 소설에 돌고구를 마련한 새로운 유형의 글쓰기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7권 448쪽·8권 540쪽, 7권 1만5000원·8권 1만6000원 /뉴시스

## “명동예술극장은 연극전용극장이다”... 공연 활성화 방안 추진

문체부 “용도변경 검토 한적 없어”

최근 명동 예술극장이 ‘연극 메카나, 케이(K)팝 공연장’이라는 논란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용도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17일 밝혔다.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주재 관광업계 간담회에서다. 명동지역 상인들은 “명동예술극장을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홍보와 공연공간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은 “명동예술극장은 연극인들의 성지와 같은 곳이므로 예술계와 논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와관련 “명동예술극장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용도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날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와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는 “명동예술극장은 연극전용극장”이라고 못박았다.



명동예술극장 전경.

문체부는 “국립극단과 함께 명동예술극장이 연극전용극장으로서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명동예술극장의 야외공연이

가능한 공간에서는 관광객 등을 위해 다양한 공연을 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도시재생 세미나 ‘깨우는 건축, 살아난 도시’

‘도시 재생’과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한 ‘도시재생 세미나: 깨우는 건축, 살아난 도시’가 24일 열린다.

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위원회가 KB라스타 청춘마루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는 건축가, 도시전문가, 시민이 도시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함께 찾아보고자 기획했다.

2018년 11월 제1차 세미나는 ‘건축가, 영웅일까? 시녀일까?’를 주제로 건축기획으로 도

시재생을 바라봤다.

12월 2차 세미나는 ‘사람들은 왜 낡은 것에 열광할까?’를 주제로 유행처럼 번지는 의도된 낡음과 건축재생을 논했다.

이번 3차 세미나는 프로그램이 만드는 도시에 대해 토론한다. 소프트웨어/터치랩 한은주 대표가 발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미래도시센터 양도식 센터장과 건축가와 공공예술작가인 양수인 대표가 토론한다. /뉴시스

###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의정활동으로

## 부안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실현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 부안군의회

2019년도 부안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회기	일시	내용
제297회 임시회	1. 3.~1. 4.	·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제298회 임시회	1. 30.~1. 31.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제299회 임시회	2. 25.~3. 15.	· 실감소 군정에 관한 보고 · 읍면 현황청취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제300회 임시회	4. 22.~4. 30.	· 군정 주요 사업 현장 방문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제301회 제1차 정례회	6. 10.~6. 20.	· 2018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제302회 임시회	7. 9.~7. 19.	· 실감소 군정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제303회 임시회	8. 26.~9. 6.	· 군정 주요 사업 현장 방문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제304회 임시회	10. 14.~10. 25.	·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제305회 제2차 정례회	11. 12.~12. 12.	· 행정사무감사 · 2020년도 예산안 등 심의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 위 계획은 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